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원장	성 명	이명선
출장기간	2015. 8. 2(일) - 2015. 8. 4(화)		출장지	중국 중경		
출장목적	❑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 70년 계기 중국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한중 청년들이 함께 탐방하는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행사에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인 본원 이명선 원장의 참석 및 축사를 요청해 옴. ❑ 본원 이명선 원장은 발대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의 출발을 축하하며, 자전거 대장정에 참석하는 한중 청년들을 독려함.					
경비부담	비예산 (주최측 부담)					
주최기관	국가보훈처					

행사명	협력기관/참석자	행사내용
한중 청년자전거 대장정 발대식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 외 관계자, 안성국 주청두총영사,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이성호 LG 하우시스 전무, 한인동포 및 학생, 중국 현지 기업인 등	❑ 발대식 행사 ❑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

한중 청년자전거 대장정
발대식 참석
출장보고서

2015. 8.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출장배경 및 목적

가. 출장배경

-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지역 임시정부 활동지역을 한중 청년이 함께 자전거로 함께 탐방하는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발대식 항세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인 본원 이명선 원장의 참석과 축사를 요청해 옴.

나. 출장목적

-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의 출발을 축하하는 축사 전달
- 자전거 대장정에 참석하는 한중 청년들 독려

2. 출장개요

가. 출장지: 중국 충칭

나. 출장자: 본원 이명선 원장

다. 출장기간: 2015. 8. 2(일) - 8.4(화)

일자	내용	장소
8/2 (일)	• 이명선 원장 출국 (OZ 353 08:40 인천 -> 11:30 충칭)	인천->충칭
8/3 (월)	• 자전거 대장정 발대식 •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방문 • 오찬 (보훈처 차장 주재) • 유중구 관계자 면담/역사현장 방문	충칭
8/4 (화)	• 광복군총사령부 소재지 방문 • 귀국 (OZ 354 12:30 충칭 -> 17:00 인천)	충칭 충칭->인천

3. 출장개요

가. 발대식 행사 내용

- 일시 및 장소: 2015. 8. 3(월) 10:00~11:00, 충칭 인민해방기념비
- 참석자: 본원 이명선 원장(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 외 관계자, 안성국 주청두총영사,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이성호 LG 하우시스 전무, 자전거 대장정팀, 한인동포 및 학생, 중국 현지 기업인 등 200여명
- 식순
  - 내빈소개
  - 개식사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
  - 환영사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 축사 (본원 이명선 원장, 안성국 주청두 총영사)
  - 대장정 팀 소개 및 윤리강령 낭독
  - 발대 퍼포먼스: 대장정 깃발 및 희망리본 전달
  - 기념공연 및 기념촬영

나. 발대식 이후 일정

-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 참배(헌화, 묵념) 및 관람 등
- 유중구 관계자 면담/역사현장 방문
- 충칭 광복군총사령부 소재지 방문

붙임1 **본원 이명선 원장 축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대장정에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먼저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발대식은 광복7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의 첫 출발을 알리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활동지였던 이곳 충칭을 출발하여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한중 청년들의 자전거 대장정의 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조국 광복을 향한 열정과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한 달여간 함께 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미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숱한 역경을 딛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국하여
오늘날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성취의 역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슬로건이 보여주듯
광복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 온 길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여정'이라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광복을 위해 피땀 흘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광복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열들이 조국 광복을 꿈꾸며 이동했던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평화통일의 꿈을 안고 달리게 될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선열들이 소망했던 진정한 광복의 길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려 3,000km를 자전거로 이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애국혼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먼 길일수록 혼자보다는 친구와 함께하고,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한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무사히 완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중국 정부와
오늘 함께해주신 중국 충칭시 및 유중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해오신
국가보훈처 및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해외동포 및 학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행사 참석 주요내빈 (한국)**

성 명	주요 이력	비 고
최완근(崔完根)	○ (현) 국가보훈처 차장 ○ 1961년생	정부 대표
이명선(李明善)	○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1957년생	정부 대표
안성국	○ 주청두총영사	정부 대표
홍준호(洪準浩)	○ 조선일보 발행인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1957년생	행사 공동 주최사 대표
김병호(金炳豪)	○ (주)하나은행 은행장(6대) ○ 미국 U.C. Berkeley 졸업(MBA) ○ 서울대학교 졸업 ○ 1961년생	민간 후원사 대표
김한조(金漢祖)	○ 한국외환은행 은행장(25대) ○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1956년생	민간 후원사 대표
	○ LG 하우시스 상무(마케팅 담당) ○ 1963년생	민간 후원사 대표

이성호(李成浩)		

붙임3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복70년 계기 한중 청년들이 중국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함께 탐방하고 역사의 현장을 공유하는 계기 마련
- 미래세대인 양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전거 역사 탐방을 하고 서로 동반자로 인식 및 협력 분위기 조성

○ 일　　정 : 2015. 8. 3(월) ~ 9. 4(목)

○ 사업주체 : 국가보훈처·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조선일보

○ 후　　원 : 하나(외환)은행

○ 참여규모 : 한중 청년 각 10명, 관계자(안전, 의료 등) 포함 50여명

○ 예정루트 : 충칭 ~ 상하이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이후 상해,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중경 등 여러 지역을 이동(당시 지명)

2 인원 선발 및 훈련

○ 모집 공고 및 선발(20명) : '15. 5. 29 ~ 6. 26　　* 붙임 4 참고

○ 국내훈련 실시 : '15. 7. 16~17(1차), 7. 23~24(2차), 강촌 오토캠핑장

○ 현지 적응훈련 : '15. 7. 31 ~ 8. 2, 충칭 남빈루 강변공원

❍ 탐방단 구성(총 42명)

- 탐방단(23) : 탐방대장(1), 탐방대원(20, 선발완료), 운영대원(2)
- 지원단(19) : 탐방단장(1), 행정지원(4), 취재·영상(8), 의료·통역(1), 가이드(1), 여행사 및 운전(4)

붙임4 관련 신문기사

<조선일보 2015. 8. 4. 일자 보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광복의 정신을 되새기는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레이스가 3일 시작됐다. 한·중 청년 대원들이 이날 중국 충칭 시내 인민해방기념비 광장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오종찬 기자

광복70년 韓·中청년 대장정 '첫 페달'

임시정부 발자취따라 3000㎞ 中충칭서 '33일 레이스' 출발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거든 독립군의 혼령이 됨이~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3일 오전 중국 충칭 인민해방기념비 앞, 독립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중 청년들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1910~20년대 독립군들이 만주 청산리·봉오동 전투 등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100년 만에 중국 땅에 다시 메아리치는 가운데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록밴드 크라잉넛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격정적이었다.

황인범 대장을 비롯한 대원 20명은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향해 가파른 언덕길을 거침없이 달려 올라갔다. 한·중 주요 인사와 한국 교민·충칭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며 이들을 뒤따랐다.

대원들은 앞으로 33일, 상하이까지 3000㎞를 두 바퀴로 달린다. 임정 요인들이 피땀을 쏟으며 걸어온 역경의 길을 거꾸로 되밟으며 고난을 영광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나가는 여정이다. 황인범 대장은 "임정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광복과 통일, 평화의 길'을 일궈 나가겠다"고 했다.

자전거 대열은 충칭 임정 청사에서 머물렀다. 70년 전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감격을 나눈 곳이다. 이준영(35) 대원은 "역사적인 현장에 서니 목이 멘다. 그 정신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달리겠다"고 했다.

충칭=배성규 기자 기사 A4·5면

40도 폭염에도 거칠것 없다… '抗日·光復루트' 뜨거운 질주

대장정 첫 기착지는 임시政府 마지막 사진 찍던 돌계단

충칭 임시정부 청사 건물 재단장하기로

임시정부 인사 20여명 묻혔던 곳은 폐허로 변해

"임시정부는 韓·中 역사 교류의 장"